

# Radical Disciple X.

##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 1. 진짜 싸움

[에베소서 6: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성도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지배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영의 존재가 있다고 말한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원리는 간단하다. 악이 보이지 않지만 '악'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존재한다. 사람은 '악'을 알 수 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기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자신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가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라 말한다. 여기서 언급한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의 지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세상은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인다. 힘이 강할수록 영향력 또한 커진다.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를 '지배'아래 있다고 말한다. 그 지배가 구조가 될 때 '권세'라 말한다.

- \* 통치 -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
- \* 지배 -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 \* 권세 - 지배의 힘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상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악'이 어떻게 구조화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사역을 하기 전,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다. 권능은 '능력, 권세'이다. (엑수시아, 두나미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레디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있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안에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 2. 견고한 진, 그리고 문화

[고린도후서 10:4-5]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나'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말씀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다. 신앙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신 영역은 사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로마서 12:2에도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신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의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 있다고 말한다. 원수가 우리를 대항할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들의 '생각'에 있다고 말한다(고후 10:5).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은,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이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 (1) 견고한 진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이다. 그 반응이 영적 분위기를 만든다. 영적 분위기가 지속되어 흐르고 있는 상태를 '영적기류'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구조화된 상태가 바로 '문화'라 한다.

### (2) 문화에 대하여

그러므로 내 자신, 가족 공동체, 사회, 도시, 국가가 어떤 영적기류를 만들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영역에 반응하고 있는지는 중요하다. 생각이 영적기류를 만들고, 기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견고한 진'이 된다. 문화가 왜 중요한가?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가 만약 악한 영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면, 악한 영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3) 영적 기류에 대하여

그렇다면 영적기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영적기류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의해 만들어진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라. 그들의 생각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생각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안에 두려움과 좌절의 영적공기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말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SNS'를 보라. 글은 음성이 없는 말과 같다. 글을 읽는 순간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기류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창조의 언어를 통해 형성된 영적기류는 기쁨, 생명, 충만, 부유함, 사랑 등의 기류를 에덴 가운데 만들었다. 그것이 에덴의 문화가 되었다.

사탄 또한 말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미혹했다. '말'이 생각에 침투했고,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류를 만들고,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

## 3. 오늘 우리의 생각안에 있는 견고한 진

### (1) 에서의 문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바람). 그래야 실상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문화'이다.

에서의 잘못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자권을 '함부로 여긴 생각'이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중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 안에서의 '중요함'이다. 그 생각이 파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고 나의 삶에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옆을 살피지 않았다. 꼭 야곱처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성경의 관점은 '예'이다.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찮게 여긴 '에서'의 잘못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강하게 갈망해야 한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야곱과 같은 갈망이 있어야 한다. 불이 있어야 한다. 이 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처럼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영적인 세계는 갈망하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므로 우리안에 에서의 문화, 에서의 생각을 없애야 한다.

## (2)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문화 - 행동하지 않는 생각의 문화

달란트 비유가 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돌아와보니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한다.

[마태복음 25:24-25]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 (주인은 굳은 분이시다). 그 생각안에 주인을 스스로 오해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런 종을 향해 주인은 '악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같은 잘못이 있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각과 행동의 '한계'를 만들어 낸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다. 자신의 판단으로 결국 그는 마지막 때에 판단을 받게 되어있다.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이다. 체험을 할 때이다. 하나님의 일 또한 그와 같다. 제자의 길은 생각의 길이 아니라 체험의 길이다. 움직여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그물을 버려두고 먼저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보물을 발견한다. 나를 넘어설 수 있다. 군중은 머물러 있지만 제자는 움직인다. 비전은 움직이는 자들에 의해 성취된다.

"Thinker 가 되지 말고 Mover가 되어라."

## (3)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 이삭

이삭이 되어야 한다. 이삭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한다. 아들 이삭의 위대함은 움직이는 자였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자기가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내 생각이 죽는 십자가로 가야한다. 생각이 아니라 움직일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움직이는 방향은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생각이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악한 영의 '진'을 처리해야 한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의 견고한 진을 십자가 능력으로 무력화 시키는 그 순간, 이 때가 바로 자기부인의 순간이다. 움직일 때 알게 된다.

## 4. 실행자

제자는 실행하는 자이다. 다윗의 마음안에 있었던 성전건축을 이루어낸 솔로몬이 일어나야 한다. 모세의 마음안에 있었던 성막에 대한 실행을 가능하게 한 오홀리압과 브살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안에 있었던 인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 땅으로 내려오셨다)

스스로 움직여라.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 전쟁에서 이기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자.'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나아가자.